2026. 11. 6.(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11월 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 특별시 서울 SEOUL MY SOUL

보도자료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담당 부서:

서울상상나라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아이돌봄담당관	최인성	02-2133-4801
키즈카페운영팀장	황유진	02-2133-4811
서울상상나라 담당자	추수지	02-6450-9546
관련 누리집	seoulchildrensmuseum.org (서울상상나라)	

다정함을 체험하다…서울상상나라, 8년 만에 상설전시 새 단장

- 1층 상설전시 전면 개편… 체험으로 배우는 소통과 배려, <매일의 다정함> 11.7.(토) 개막
- 친절·배려 경험하는 체험 전시물 9종 구성… 다정한 상호작용으로 사회정서 발달 지원
- '부드러운 레고'로 불리는 佛작가 베르토노의 <아키플리츠> 아시아 최초로 선보여
- 전시장 입구 등 공용 공간도 정비…개인·단체 관람객 최대 100명 동시 체험 가능

☐ 서울시 대표 어린이박물관 '서울상상나라'(관장 최윤아)가 기존 상설전시 공간을 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새 상설전시인 <매일의 다정함>을 7일(토)부터 선보인다.

☐ <매일의 다정함>은 '다정한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다정한 말과 행동이 주변에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어린이가 직접 경험하도록 기획됐다. 어린이가 가족, 친구는 물론 전시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격려와 칭찬, 배려, 양보를 주고받으며 소통의 즐거움과 가치를 발견해보는 전시다.

○ 서울상상나라는 어린이의 미래 핵심역량 중 하나인 '소통 역량'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1층 상설전시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왔다. '통하는 기쁨'을 주제로 선보인 전시 <통-하다>에 이어, 이번에는 일상 속 다정한 말과 행동을 통해 소통의 의미를 확장한다.

☐ 전시는 '마음 열기, 연결하기, 화합하기'의 과정에 따라 친절과 배려를 경험하는 체험 전시물 9종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등 단체 관람객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 입구에서는 룰렛을 돌려 친절을 실천하는 △ **'친절 한 바퀴'**, 레버를 당겨 나온 다정한 미션을 수행하는 △ **'따뜻 한 칸'**, 엽서를 직접 배달하는 △ **'격려 배달원'**을 체험할 수 있다.

○ 전시장 중앙에서는 운동기구를 함께 움직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 **'기쁨×기쁨'**, 미디어 테이블에서 다정한 행동 미션을 수행하는 △ **'모두의 손짓'**, DJ 체험을 통해 소리를 조화롭게 만드는 △ **'하모니 작업실'**을 만날 수 있다.

○ △ **'다정한 건축가들'**에서는 블록과 <아키플리츠>로 함께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 공간인 △ **'다 같이, 안녕!'**에서 다정한 인사를 나누며 배려의 의미를 되새긴다.

☐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부드러운 레고'로 불리는 프랑스 작가 줄리엣 베르토노의 섬유 구조물 작품인 <아키플리츠(ArchiPleats)>를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다. 서울상상나라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베르토노 작가와 협업해 영유아도 안전하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작품을 새롭게 개조·제작했다고 설명했다.

○ 줄리엣 베르토노는 전통 직조 기술과 핸드 플리츠(수제 주름) 기법으로 입

체 섬유 구조물을 만드는 프랑스 디자이너로, 2023년 파리시 창작대상(Grand Prix de la Création de la Ville de Paris) 디자인 부문 신진 인재(3D 텍스타일 전문)에 선정됐으며 퐁피두 센터, 에르메스 등과도 협업했다.

○ 어린이들은 <아키플리츠>의 말랑한 블록을 구부리고 연결해 쌓으며 다정한 상호작용을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동시에, 나와 이웃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u><전시장 입구 등 공용 공간도 정비…개인·단체 관람객 최대 100명 동시 체험 가능></u>

□ **한편, 서울상상나라는 이번 전시 개편과 함께 전시장 입구와 세면대 등 공용 공간도 새롭게 단장해, 개인과 단체 관람객 등 최대 100명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 전시는 서울상상나라 입장권 구매 후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상상나라는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위해 하루 입장 정원이 있어, 누리집(www.seoulchildrensmuseum.org)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 '서울상상나라' 관람정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마감 : 오후 5시 / 매주 월요일 휴관)
- **입장요금 :** 36개월 이상 어린이 및 성인 4천원 ※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무료
- **관람문의 :** www.seoulchildrensmuseum.org / (02) 6450-9500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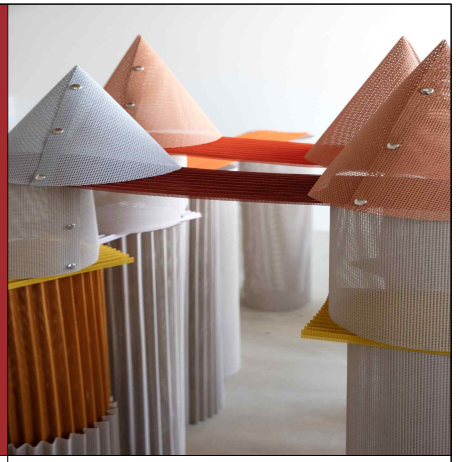
□ **최인성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이 일상 속 작은 친절과 배려가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방식의 공감각적 체험을 기반으로 가족과 친구, 처음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 임1 <매일의 다정함> 포스터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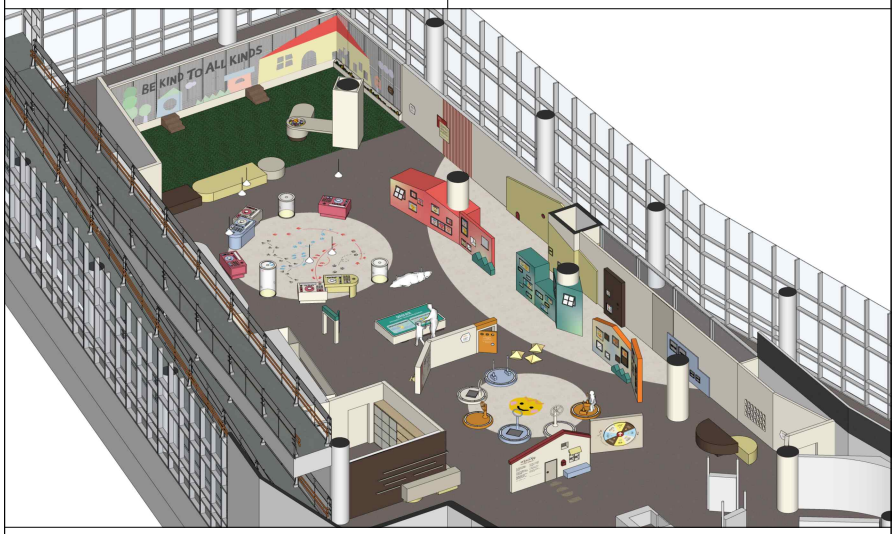
□ 사진



전시 홍보 포스터(세로형)



프랑스 작가 줄리엣 베르토노
작품<아키플리츠(ArchiPleats)> 사진



8년만에 재구성된 1층 상설 전시관 조감도

[참고] 전시 서문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만나 서로 인사하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상호작용*합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정하게' 소통하고 있나요?

소중한 나의 가족과 반려동물들에게는 물론,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이웃에 사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반가운 표정, 따뜻한 마음, 상냥한 태도로
내가 먼저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건네는 다정한 말과 행동들이
주변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매일의 다정함〉에서 마음껏 체험하며
여러분의 작지만 커다란 힘을 직접 느껴보세요!

*상호작용: 둘 이상이 말과 행동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